

기술분석보고서 IT

옵트론텍(082210)

- 요약
- 기업현황
- 시장동향
- 기술분석
- 재무분석
- 주요 변동사항 및 전망

작성기관 서울평가정보(주) 작성자 박진희 책임

[YouTube 요약 영상 보러가기](#)

- 본 보고서는 투자 의사결정을 위한 참고용으로만 제공되는 것이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보고서를 활용한 어떠한 의사결정에 대해서도 본회와 작성기관은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본 보고서의 요약영상은 유튜브로도 시청 가능하며, 영상편집 일정에 따라 현재 시점에서 미공개 상태일 수 있습니다.
- 텔레그램에서 “한국IR협의회” 채널을 추가하시면 매주 보고서 발간 소식을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본 보고서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작성기관(TEL.02-3449-1450)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옵트론텍(082210)

모바일 광학부품 기반 전장·방산·로보틱스용 정밀광학으로 성장영역 확장 추진 중

기업정보(2026.07.28 기준)

대표자	최상호
설립일자	1999년 5월 26일
상장일자	2005년 6월 24일
기업규모	중소기업
업종분류	광학렌즈 및 광학요소 제조업
주요제품	이미지센서용 필터, 광학렌즈 및 렌즈모듈, 폴디드 줌 등

시세정보(2026.07.28 기준)

현재가(원)	2,075
액면가(원)	500
시가총액(억 원)	725
발행주식수	35,313,960주
52주 최고가(원)	2,540
52주 최저가(원)	1,241
외국인지분율	9.24%
주요주주	CHOISANGHO, CORP. 외 2인

■ 광학필터 기반 기술을 OIS와 비모바일용 광학부품으로 확장 중

옵트론텍(이하, 동사)은 2005년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고, 스마트폰·차량·보안기기용 카메라에 적용되는 광학 액츄에이터, 이미지센서용 광학필터 및 렌즈·렌즈모듈을 주력으로 생산하고 있다. 동사는 광학 박막 증착, 정밀가공, 이물 관리, 광학·기구 설계 및 구동기술을 기반으로 OIS(Optical Image Stabilization, 광학식 손떨림 보정), 폴디드 줌, 가변 조리개와 전장용 렌즈 등으로 제품군을 확대하고 있다. 향후 모바일용 OIS와 고사양 필터의 양산 확대, 자동화 및 수율 개선을 추진하며, 차량·방산·로보틱스용 렌즈와 라이다·MLA·지능형 조명용 광학부품을 육성해 모바일 중심의 사업구조를 다변화할 것으로 판단된다.

■ 고사양 카메라 확산에 따른 성장 기회와 물량·가격 경쟁 부담 공존

목표시장은 스마트폰 출하량뿐 아니라 OIS 적용 범위, 폴디드 줌 채택, 이미지센서 고화소·대형화 및 필터 사양 변화에 따라 수요가 결정되는 기술·설비집약적 시장이다. 최근 스마트폰 카메라는 탑재 수 확대보다 주력·망원카메라의 고성능화로 중심이 이동하면서 정밀 액츄에이터와 고성능 필터의 부품가치가 높아지고 있다. 다만 스마트폰 출하 감소, 보급형 모델의 카메라 축소, 단가 인하 및 중국 업체와의 가격 경쟁은 시장의 성장과 수익성을 제약하는 요인이다.

■ OIS 양산 안정화와 비모바일용 광학부품 사업화 추진 중

동사는 2025년 국내 본사·연구개발 거점을 재편하고, 베트남 생산법인을 활용해 일반 OIS와 가변조리개 등 광학 액츄에이터의 양산 기반을 강화하는 한편, 광학필터 중심의 사업구조를 정밀 구동부품과 비모바일용 광학부품으로 넓히는 방향을 구체화하고 있다. 향후에는 신규 OIS 라인의 수율 안정화, 고사양 광학필터의 공급지위 유지 및 비모바일용 제품의 고객 승인 확대가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스마트폰 수요 변동, 고객·모델 집중도, 단가 인하와 가격 경쟁, 지분 희석 가능성은 부담 요인이다.

요약 투자지표 (K-IFRS 연결 기준)

	매출액 (억 원)	증감 (%)	영업이익 (억 원)	이익률 (%)	순이익 (억 원)	이익률 (%)	ROE (%)	ROA (%)	부채비율 (%)	EPS (원)	BPS (원)	PER (배)	PBR (배)
2023	2,330.0	16.8	100.8	4.3	18.9	0.8	9.3	0.7	1,126.4	95	901	38.8	4.1
2024	2,179.6	-6.5	-44.5	-2.0	263.1	12.1	51.2	11.3	180.0	924	2,501	1.8	0.7
2025	1,957.4	-10.2	-31.1	-1.6	-219.6	-11.2	-30.5	-9.7	291.3	-649	1,841	N/A	0.9

기업경쟁력

광학부품 통합개발 역량	파장 제어, 정밀 구동, 광학 정렬 및 품질검사를 아우르는 기술 기반을 통해 광학필터부터 액츄에이터와 카메라모듈까지 통합적으로 개발
연구개발·양산 연계체계	대전·과천의 연구개발 조직과 중국·베트남 생산법인을 연계해 고객 요구 사양의 설계부터 시제품 검증, 공정 최적화 및 대량생산까지 대응
양산 품질·공정 자동화 역량	자동 광학검사와 후공정 자동화, 미세 이물 및 위치편차 관리기술을 통해 고정밀 광학부품의 수율과 품질 재현성 확보

핵심 기술 및 적용제품

다층박막 광학필터 설계·증착 기술	굴절률이 다른 물질의 적층구조와 막 두께를 제어해 특정 파장을 선택적으로 투과·차단하며, 적외선 차단필터, 필름필터 및 대역통과필터에 적용
다축 광학 액츄에이터 설계 기술	볼 가이드와 자석·코일 구동구조를 이용해 렌즈와 프리즘을 정밀하게 이동시키며, 일반 OIS, 폴디드 줌 및 다단 줌 모듈에 적용
가변조리개·카메라모듈 통합설계 기술	촬영 환경에 따라 광량과 심도를 조절하고 복수 구동부의 배치와 전기적 연결을 최적화하며, 다단 가변조리개와 고사양 카메라모듈에 적용

시장경쟁력

주요 고객사 개발 참여 경험	장기간 주요 스마트폰 고객사의 신규 광학필터 개발과 양산에 참여해 축적된 품질승인 이력과 고객 대응 경험 보유
고사양 카메라 수요 대응력	OIS 적용 확대, 폴디드 줌 보급 및 이미지센서 고화소·대형화에 대응하는 제품군을 확보해 프리미엄 카메라 부품 수요에 대응
기술·양산 진입장벽 확보	박막설계와 정밀가공, 액츄에이터 구동, 자동검사 및 관련 특허가 결합돼 신규 업체가 단기간에 대체하기 어려운 공급 기반 형성

VRIO 분석 (VRIO Analysis)

VRIO(브리오) 분석이란 기업이 보유한 경영자원과 활용 능력을 가치(Value), 희소성(Rarity), 모방 가능성(Imitability), 조직(Organization)이라는 기준으로 분석하는 도구

			
가치(Value)	희소성(Rarity)	모방가능성(Imitability)	조직(Organization)
다층박막 광학필터, 정밀가공·자동검사, OIS·폴디드 줌 및 가변조리개 설계기술을 통해 고사양 스마트폰 카메라의 화질·구동 성능과 양산 신뢰성 요구에 대응하고 있다.	광학필터의 파장 제어 기술과 액츄에이터·카메라 모듈 통합설계 역량 보유, 고객의 필터 개발에 장기간 참여한 경험은 국내 공급망 내에서 비교적 희소한 자원으로 판단된다.	박막구조 설계, 증착·정밀가공, 미세 이물 관리, 구동부 설계 및 양산 수율 안정화 역량은 장기간의 공정 노하우와 고객 승인 이력이 축적돼야 하므로 단기간에 모방하기 어렵다.	연구개발 조직과 해외 생산법인을 연계하고, 관련 특허·자동화 설비·고객 공동개발 체계를 구축해 보유기술을 제품개발과 대량생산으로 전환하는 조직 기반을 갖추고 있다.

I. 기업 현황

광학필터 기반 기술을 OIS와 전장용 광학부품으로 확장하는 카메라 광학 솔루션 기업

동사는 2005년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고, 스마트폰·차량·보안기기용 카메라에 적용되는 광학 액츄에이터, 이미지센서용 광학필터 및 렌즈·렌즈모듈을 주력으로 생산하고 있다. 광학 액츄에이터와 광학필터가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국내 연구개발 거점 및 중국·베트남 생산법인을 연계해 제품 개발과 양산을 수행하고 있다. 동사는 광학 박막 증착, 정밀가공, 이물 관리, 광학·기구 설계 및 구동기술을 기반으로 OIS, 폴디드 줌, 가변조리개와 전장용 렌즈 등으로 제품군을 확대하고 있다. 향후 모바일용 OIS와 고사양 필터의 양산 확대, 자동화 및 수율 개선을 추진하며, 차량·방산·로보틱스용 렌즈와 라이다·MLA·지능형 조명용 광학부품을 육성해 모바일 중심의 사업구조를 다변화할 것으로 판단된다.

■ 기업 개요

동사는 1999년 설립 후 2005년 6월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었고, 2009년 동종 사업을 영위하던 옵트론-텍을 흡수합병하면서 현재의 상호와 사업 기반을 갖추었다. 현재 대전 본사와 광기술센터, 과천 연구개발 거점을 중심으로 중국 천진·동관 및 베트남 생산법인을 운영하는 글로벌 생산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핵심 사업모델은 스마트폰·차량·보안기기용 카메라에 필요한 광학필터, 광학 액츄에이터 및 렌즈·렌즈모듈을 개발해 완성품 및 카메라모듈 제조사에 공급하는 것이다. 이미지센서용 광학필터는 불필요한 파장을 차단해 색 재현성과 영상 품질을 높이며, 광학 액츄에이터는 OIS, 폴디드 줌 및 가변조리개 구동에 사용된다. 광학렌즈와 렌즈모듈은 차량용 카메라, CCTV(Closed-Circuit Television, 폐쇄회로 텔레비전), 블랙박스 및 프로젝터 등에 적용된다.

생산은 제품과 공정 특성에 따라 국내와 해외법인에 분산돼 있다. 대전에서는 광학필터와 MLA(Micro Lens Array, 마이크로 렌즈 어레이) 사업을 총괄하고, 베트남법인은 광학필터, 필터 조립품, 폴디드 줌, 프리즘, OIS, 가변조리개 및 차량용 렌즈를 생산하며, 중국 천진과 동관법인은 각각 렌즈·모듈 생산과 필터 조립·프리즘 생산 및 현지 고객 대응을 담당한다.

동사의 경쟁력은 광학 박막 증착과 정밀가공, 이물·불량 관리, 광학·기구 설계 및 액츄에이터 구동 기술을 복수 제품군에 적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미지센서용 필터는 고굴절률과 저굴절률 물질을 교대로 증착하고 박막의 응력과 균열을 제어해야 하며, 미세 이물을 관리하는 검사체계가 제품 수율과 신뢰성을 좌우한다. 동사는 자동화된 고속 검사와 후공정 자동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광학필터와 OIS 모듈, 카메라 모듈 및 차량용 광학부품에 관한 특허를 확보하고 있다.

향후 동사는 모바일용 광학필터의 기존 고객 기반을 유지하고 OIS·가변조리개 등 구동부품의 양산을 확대하는 한편, 차량·방산·로보틱스용 렌즈와 라이다·MLA·지능형 조명용 광학부품의 사업화를 병행하여, 모바일과 비모바일 광학부품을 함께 성장축으로 육성하는 사업구조로 전환할 전망이다.

[표 1] 동사의 주요 연혁

년도	내용
1999.05	법인 설립
2005.06	코스닥 시장 상장
2017.12	스마트폰 카메라용 가변조리개 양산
2020.11	Folded Zoom Mirror 양산
2022.12	광기술센터 신설
2023.04	옵트론전자(홍콩)유한공사 청산 삼성전기 우수협력사(생산성 혁신부문) 수상
2023.07	(주)플루토스파트너스 자회사 편입
2023.09	마이크로액츄에이터(주) 자회사 편입
2024.12	(주)티알에스 자회사 매각

자료: 동사 사업보고서(2026.06), 홈페이지, 서울평가정보(주) 재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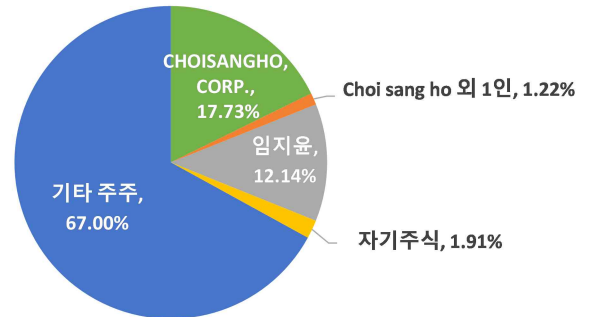
■ 주주 현황

2026년 7월 기준 동사의 최대주주는 CHOISANGHO, CORP.로, 전체 발행 보통주(34,963,330주) 중 6,199,567주의 보통주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전체 보통주 지분의 17.73%에 해당한다. 다음으로 Choi sang ho 외 1인의 특수관계자가 426,898주(1.22%)의 보통주를 보유하고 있어,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자가 보유한 주식의 지분을 합계는 18.95%이다. 한편, 주요 주주 임지윤(12.14%)이 확인되고, 동사는 자기주식 667,239주를 보유하고 있으며, 나머지 23,426,006주(67.00%)는 기타 주주가 보유하고 있다.

동사는 최대주주 측 합산 지분율이 20%를 하회하고 기존 최대주주가 주요 주주로 잔존하는 가운데, 소액주주 비중이 높은 비교적 분산된 지배구조를 보이고 있다. 최대주주는 2024년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변경됐으나 지배력은 절대적으로 높지 않은 수준이며, 2026년 1분기 전환사채의 전환권 행사로 발행주식 수가 증가하면서 최대주주 측 지분율이 추가로 낮아졌다. 향후 잔여 전환사채의 전환이 이어질 경우 최대주주와 기존 주주의 지분 희석이 확대될 수 있어 경영권 안정성과 주주 간 이해관계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동사의 지배구조 안정성은 사업성과 개선과 함께 전환사채 관리, 추가 자금조달 방식 및 자기주식 활용 등 자본정책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에 좌우될 것으로 판단된다.

[표 2] 동사의 주요 주주 현황(보통주 기준)

주주명	소유주식수(주)	지분율(%)	관계
CHOISANGHO, CORP.	6,199,567	17.73%	최대주주
Choi sang ho 외 1인	426,898	1.22%	특수관계인
임지윤	4,243,620	12.14%	
자기주식	667,239	1.91%	
기타 주주	23,426,006	67.00%	
합계	34,963,330	100.00%	



자료: 동사 분기보고서(2026.05), 주식등의대량보유상황보고서(2026.07), 서울평가정보(주) 재구성

■ 사업 영역

동사의 핵심 사업은 스마트폰 카메라용 광학 액츄에이터와 이미지센서용 광학필터다. 광학 액츄에이터는 렌즈 또는 프리즘을 정밀하게 움직여 손떨림을 보정하거나 광학 줌을 구현하는 부품으로, 폴디드 줌, 일반 OIS 및 가변조리개 제품으로 구성된다. 2025년 광학 액츄에이터 매출은 948.2억 원으로 전체 매출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동사는 폴디드 줌 중심의 사업에서 일반 OIS 양산으로 제품군을 확대하고 있으며, 액츄에이터 사업은 기존 필터 사업과 함께 모바일 부문의 핵심 수익원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미지센서용 광학필터는 스마트폰과 적외선 응용 카메라에서 특정 파장을 선택적으로 투과하거나 차단하는 부품이다. 동사는 적외선 차단 필터, BPF(Band Pass Filter, 대역통과필터), 필름 필터 및 프리즘 등을 공급하고 있으며, 관련 기술은 일반 촬영뿐 아니라 ToF(Time of Flight, 비행시간측정) 방식의 3차원 센싱, 안면·홍채·지문 인식 등으로 적용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광학필터 매출 비중은 2025년 30.1%였고, 2026년 1분기에도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광학렌즈 및 렌즈모듈 사업은 차량용 카메라와 CCTV를 넘어 로봇틱스, 방산 및 무인기용 특수광학으로 적용처가 확대되면서 주요 성장축으로 부상하고 있다. 동사는 서라운드뷰, 운전자 모니터링, 전·후방 카메라,

야간투시, 라이다, MLA 헤드램프, 퍼들램프·로고램프 및 적외선 반사체 관련 제품과 기술을 개발하고 있으며, 일부 프로젝트는 제품 설계 확정과 초기 개발비 수취를 거쳐 샘플 공급을 준비하는 단계에 진입한 것으로 파악된다. 해당 부문의 매출 비중은 2023년 17.2%에서 2026년 1분기 21.1%로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어 중기 실적 기여 가능성이 구체화되는 단계로 판단된다.

보안용 카메라와 광픽업 필터 등 기타 사업 매출 비중은 제한적이나, 렌즈 설계·가공과 필터 코팅 기술의 적용 범위를 넓히는 역할을 한다. 보안용 제품은 도어폰과 CCTV 카메라모듈을 중심으로 설계부터 조립까지 일괄생산하며, 홍채 인식과 움직임 감지 기능을 결합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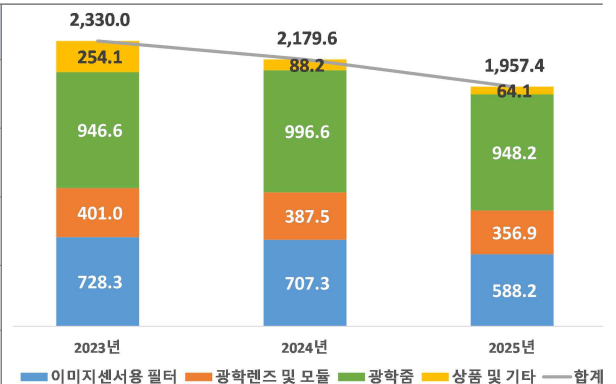
사업 포트폴리오는 광학필터에서 축적한 설계 및 공정기술을 액츄에이터와 렌즈모듈로 확장하는 구조다. 단기적으로 모바일용 OIS 양산 확대가 주된 성장동력으로 작용하며, 광학렌즈 및 모듈도 전장·방산·로보틱스 분야의 수요가 유입되고 사업화가 진전되고 있다. 향후 양산 전환과 MLA·라이다·특수광학 제품의 적용 확대로 렌즈 부문이 별도의 성장축으로 자리 잡으며 스마트폰 의존도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표 3] 동사의 매출 실적

(단위 : 억 원, % K-IFRS 연결 기준)

구분		2023년	비중	2024년	비중	2025년	비중
제품	필터	728.3	31.3%	707.3	32.5%	588.2	30.1%
	렌즈	401.0	17.2%	387.5	17.8%	356.9	18.2%
	광학줌	946.6	40.6%	996.6	45.7%	948.2	48.4%
상품 및 기타		254.1	10.9%	88.2	4.0%	64.1	3.3%
매출 합계		2,330.0	100.0%	2,179.6	100.0%	1,957.4	100.0%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이미지센서용 필터	728.3	707.3	588.2
광학렌즈 및 모듈	401.0	387.5	356.9
광학줌	946.6	996.6	948.2
상품 및 기타	254.1	88.2	64.1
합계	2,330.0	2,179.6	1,957.4



자료: 동사 사업보고서(2026.03), 서울평가정보(주) 재구성

■ 판매조직 및 판매전략

동사의 판매방식은 고객의 신제품 개발 일정에 맞춰 광학 사양을 설계하고 샘플 제작, 성능 검증, 공급업체 승인 및 양산으로 이어지는 기술 기반의 영업이다. 스마트폰 카메라용 부품은 모델별 해상도, 센서 크기, 광학 줌 배율 및 모듈 두께가 달라 고객과 공동개발 및 초기 설계 참여가 중요하다. 차량용 광학부품은 내환경성·내구성 및 장기간 품질 안정성에 대한 검증이 요구돼 개발에서 매출 발생까지 비교적 긴 기간이 소요된다.

대전과 과천의 기술·연구개발 조직이 제품 설계와 고객 기술 대응을 담당하고, 중국과 베트남 법인은 생산과 현지 마케팅 및 납기 대응을 수행한다. 중국 천진법인은 해외 고객의 개발 요청에 따른 샘플 공급과 현지 영업을 수행하며, 동관법인은 중국 내 마케팅과 스마트폰용 필터 조립·프리즘 생산을 병행한다. 본사의 글로벌 영업·마케팅 기능과 해외 생산법인을 연계하여 고객의 개발거점과 생산거점에 근접한 대응체계를 구축하였다.

가격 측면에서는 IT 기기의 짧은 제품수명과 고객사의 원가절감 요구로 인해 매 분기 또는 반기마다 단가 협상이 진행된다. 동사는 단순 물량 확대보다는 신규 OIS, 고사양 필터, 폴딩드 줌 및 가변조리개 등 부품의 기능을 고도화하고, 후공정 검사·포장 자동화를 통해 생산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단가 인하 부담에 대응하고 있다. 따라서 동사의 판매전략은 고객 신제품에 조기 진입해 고사양 제품 비중을 확대하고, 해외 양산거점의 자동화와 수율 개선을 통해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정리된다.

II. 시장 동향

고사양 카메라 확산에 따른 성장 기회와 물량·가격 경쟁 부담이 공존하는 광학부품 시장

목표시장은 스마트폰 출하량뿐 아니라 OIS 적용 범위, 폴디드 줌 채택, 이미지센서 고화소·대형화 및 필터 사양 변화에 따라 수요가 결정되는 기술·설비집약적 시장이다. 최근 스마트폰 카메라는 탑재 수 확대보다 주력·망원카메라의 고성능화로 중심이 이동하면서 정밀 액츄에이터와 고성능 필터의 부품가치가 높아지고 있다. 다만 스마트폰 출하 감소, 보급형 모델의 카메라 축소, 단가 인하 및 중국 업체와의 가격 경쟁은 시장의 성장과 수익성을 제약하는 요인이다. 이에 시장 경쟁력은 고사양 제품의 개발 대응력, 디자인인 확보, 양산 초기 수율 안정화 및 원가절감 역량에 의해 좌우될 것으로 판단된다.

■ 스마트폰 카메라용 광학 액츄에이터 및 광학필터 시장의 특성

동사의 목표시장은 스마트폰 카메라용 광학 액츄에이터 및 광학필터 시장으로 정의된다. 광학 액츄에이터는 카메라모듈 내부에서 렌즈 또는 프리즘의 위치를 정밀하게 제어해 AF(Auto Focus, 자동초점), OIS, 폴디드 줌 및 가변조리개 기능을 구현하는 부품이다. 광학필터는 이미지센서에 입사하는 빛 가운데 불필요한 적외선이나 특정 파장을 차단 또는 선택적으로 투과시켜 색 재현성과 영상 품질을 조정하는 부품이다.

시장 수요는 스마트폰 출하량에 단순 연동되기보다 기기당 카메라 구성, OIS 적용 범위, 망원·폴디드 줌 탑재 여부, 이미지센서의 화소와 크기 및 필터 사양 변경에 의해 복합적으로 결정된다. 일반 카메라에도 OIS 적용이 확대되고 망원카메라에는 프리즘과 구동장치가 추가되므로, 스마트폰 한 대당 카메라 수가 정체되어도 고사양 카메라의 비중이 상승하면 액츄에이터와 광학필터의 부품가치는 높아질 수 있다. 반대로 보급형 스마트폰에서 보조 카메라가 축소되거나 카메라 사양이 낮아지면 필터와 구동부품 수요는 감소할 수 있다.

산업의 가치사슬은 광학유리·광학필름 등 원재료와 정밀부품 공급업체, 광학필터·액츄에이터 등 핵심 부품업체, 카메라모듈 조립업체 및 스마트폰 제조사로 이어진다. 부품업체는 스마트폰 제조사와 카메라모듈 업체의 신제품 개발 일정에 맞춰 설계, 시제품 제작, 성능평가 및 양산승인을 거쳐야 하므로, 고객 설계단계의 디자인인(Design-in) 여부와 양산 초기 수율·품질 안정화가 시장지위를 좌우한다. 관련하여 글로벌 CMOS 카메라모듈 시장은 2024년 395.1억 달러 규모에서 2029년까지 연평균 12.5%의 성장이 전망되고, 국내 휴대폰용 카메라모듈 시장은 2023년 11조 5,979억 원 규모에서 연평균 7.3%로 성장하여 2028년에는 16조 5,184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광학 액츄에이터는 제한된 공간에서 렌즈나 프리즘을 정밀하게 구동해야 하므로 구동 정확도, 응답속도, 소비전력, 내구성 및 소음 관리가 주요 경쟁요소다. 특히 OIS와 폴디드 줌은 광학·기구·제어 기술을 결합해 스마트폰 두께와 카메라 돌출을 최소화해야 하므로 개발 및 양산 난도가 높다. 광학필터 시장은 박막설계, 진공증착, 정밀가공 및 미세 이물 관리가 투과율·차단율과 균일도를 결정하는 기술·설비집약적 산업이다. 이미지센서가 고화소·대형화될수록 분광 특성과 표면 품질 기준이 높아지며, 3차원 센싱에는 특정 적외선 파장을 선택적으로 투과하는 필터가 요구된다.

경쟁은 신제품의 기술사양 대응력과 양산 품질뿐 아니라 가격과 납기에서도 전개된다. 스마트폰은 제품수명주기가 짧고 신규 모델 출시가 반복되기 때문에 기존 부품의 단가는 매 분기 또는 반기 단위로 인하되는 경향이 있다. 이에 업체는 고사양 제품의 신규 수주를 지속하는 동시에 자동화, 공정단축 및 수율 개선을 통해 원가를 낮춰야 한다. 시장 진입 이후에도 고객 집중도와 모델별 물량 변동이 높아 안정적인 고객 포트폴리오와 생산능력 운영이 수익성을 좌우한다.

■ 핵심 트렌드 및 시사점

스마트폰 시장은 단기적으로 출하량이 감소하고 고가 제품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 IDC에 따르면 세계 스마트폰 출하량은 2026년 2분기 전년 동기 대비 6.7% 감소한 2.7억 대를 기록했고, 2026년 연간 출하량은 전년 대비 13.9%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메모리 가격 상승과 공급 제약으로 보급형 제품의 생산 부담이 확대되었으나 삼성전자와 애플은 2026년 2분기 출하량이 각각 8.1%와 15.3% 증가해 프리미엄과 보급형 업체 간 격차가 커지고 있다. 한편, Omdia는 2026년 메모리 비용 상승에 대응해 스마트폰 제조사들이 일부 제품에서 이미지센서를 축소하거나 카메라 수를 줄이는 등 카메라모듈 사양을 조정할 수 있다고 분석했고, 부품업체에는 저가 제품의 물량 감소와 단가 인하 압력이 동시에 발생할 수 있다.

스마트폰 카메라는 탑재 수 확대보다 주력 카메라의 고성능화로 중심이 이동하고 있다. 2024~2025년 기기당 평균 카메라 수는 감소했으나 50MP 이상 고화소 카메라 비중은 확대됐으며, 주력 카메라의 평균 해상도도 54MP까지 상승했다. 이에 따라 범용 보조카메라용 부품 수요는 둔화될 수 있으나, 센서 대형화와 망원·저조도·손떨림 보정 기능 강화로 정밀 액츄에이터와 고성능 광학필터의 중요성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망원과 광학 줌 기능의 확대는 OIS 및 폴디드 줌 액츄에이터 시장의 핵심 성장요인이다. 폴디드 줌은 빛의 진행방향을 프리즘으로 꺾어 스마트폰의 두께를 크게 늘리지 않고도 긴 초점거리를 구현하며, 렌즈 또는 프리즘의 흔들림을 제어하기 위해 정밀한 OIS가 요구된다. TrendForce는 잠망경형 카메라가 일부 최고급 모델에서 프리미엄 제품군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중가 제품에는 상대적으로 단순한 구조의 폴디드 모듈이 적용되는 등 가격대별 제품 차별화가 진행될 것으로 분석했다.

AI(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와 계산사진 기술의 발전은 카메라 부품 수요에 상반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영상처리 기술의 고도화는 저사양 보조카메라를 줄이고 하나의 고성능 카메라로 여러 기능을 구현할 수 있게 해 전체 카메라 수를 감소시키는 요인이다. 반면 AI 기반 줌·저조도·동영상 보정의 입력 데이터 품질을 높이려면 주력카메라의 센서, 렌즈, OIS 및 필터 성능이 뒷받침돼야 하므로 핵심 카메라의 부품 사양은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시장은 다수의 저가 부품을 공급하는 구조보다 고성능 주력·망원카메라에 적용되는 고부가 부품 중심으로 재편될 것으로 판단된다.

OIS 적용 확대, 폴디드 줌 보급, 고사양 이미지센서 채택 및 광학필터 공급망 재편은 동사에 기회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동사는 일반 OIS와 가변조리개로 액츄에이터 제품군을 확대하고 있으며, 광학필터 분야에서도 축적된 박막설계와 양산기술을 활용할 수 있다. 다만 스마트폰 출하 감소, 기기당 카메라 수 축소, 단가 인하 및 중국 업체와의 가격 경쟁은 부담 요인이다. 향후 성과는 OIS 신규라인의 수율 안정화, 차세대 필터 대응 및 경쟁사 이탈 물량 확보 여부에 좌우될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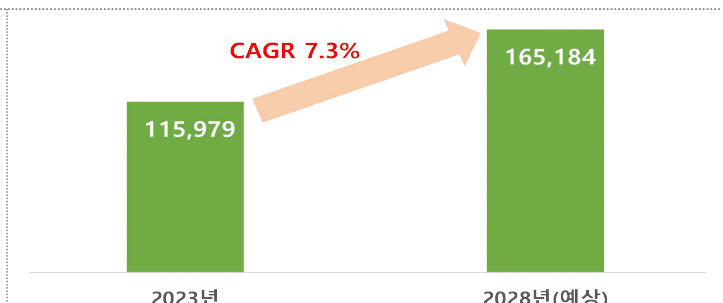
[그림 1] 글로벌 CMOS 카메라모듈 시장

(단위 : 억 달러)



[그림 2] 국내 휴대폰용 카메라모듈 시장

(단위 : 억 원)



자료: TDB 시장정보, 서울평가정보(주) 재구성

III. 기술분석

다층박막 광학필터와 OIS·가변조리개 정밀 구동 및 양산검사 기술 보유

동사는 다층박막 기반 광학필터 설계·증착, 정밀가공 및 자동검사, 다축 OIS·폴리드 줌 액츄에이터, 가변조리개와 카메라모듈 통합설계 기술을 바탕으로 파장 제어부터 구동·검사·양산까지 카메라 광학계 전반의 기술역량을 확보하고 있다. 연구개발은 대전과 과천의 연구조직 및 해외 생산거점을 연계해 고객 맞춤형 제품개발, 공정 자동화, 수율 개선과 전장용 광학부품 확장을 중심으로 추진되며, 완성차·조명·연구기관과의 공동개발도 병행하고 있다. 지식재산권은 광학필터의 박막구조와 소재, 액츄에이터 구동구조, 렌즈·광학계, 검사공정 및 라이다·MLA·퍼들램프 등 전장 응용기술까지 폭넓게 구성돼 있다.

■ 핵심 보유기술 및 특징점

동사의 기술 경쟁력은 광학필터, 광학 액츄에이터 및 렌즈·광학계를 개별 부품 단위로 개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빛의 파장 제어부터 렌즈·프리즘 구동, 광학 정렬, 검사 및 양산까지 카메라 광학계 전반을 포괄하는 데 기반한다. 특히 스마트폰 카메라용 광학필터에서 축적한 박막·정밀가공 기술을 OIS, 폴리드 줌, 가변조리개와 전장용 MLA·라이다 광학부품으로 확장하고 있어, 사업 기반이 복합 광학 솔루션으로 넓어지고 있다.

다층박막 기반 광학필터 설계·증착 기술은 동사의 핵심 기반 기술이다. 이미지센서에 필요한 가시광선은 높은 투과율로 통과시키고 불필요한 적외선과 특정 파장대는 차단하도록 굴절률이 다른 물질의 조합, 적층 순서, 막 두께 및 응력을 정밀하게 설계한다. 관련 기술은 적외선 차단필터뿐 아니라 필름필터, 흡수형 근적외선 필터, UV·NIR 대역통과필터 및 편광 결합형 필터로 확장돼 있다. 또한 수소화 실리콘층과 유전체층을 교차 적층해 입사각에 따른 중심파장 이동을 줄이고, 다중 굴절률층으로 투과·차단 성능을 높이는 구조를 권리화해 목적 파장에 최적화된 필터 설계역량을 확보하고 있다.

광학필터 정밀가공 및 양산 품질관리 기술은 필터 설계를 대량생산으로 연결하는 핵심 공정 역량이다. 제조 과정에서는 진공증착, 정밀 인쇄, 절단 및 검사가 연계되며, 증착막의 잔류응력과 균열을 제어하는 동시에 미세 이물, 얼룩, 인쇄 위치 및 절단면 품질을 관리해야 한다. 동사는 블랙 마스킹 인쇄, 위치편차 관리 및 자동 광학검사를 결합하고 전수검사 자동화를 통해 수율과 신뢰성을 높이고 있다. 또한 필터 자동검사, 상태검사·포장 및 광학 표면 파면검사 관련 기술을 확보해 검사와 포장을 포함한 양산 공정 전반에 기술을 축적하고 있다.

다축 OIS 및 폴리드 줌 액츄에이터 설계 기술은 모바일 광학부품 사업의 주요 확장 기반이다. 동사는 렌즈와 프리즘을 직교 방향으로 정밀 이동시키는 불가이드, 자석·코일 구동부, 다중 홀더 및 기판 구조를 통해 흔들림 보정과 광학 줌을 구현한다. 폴리드 줌은 제한된 스마트폰 두께 안에서 고배율 촬영을 구현해야 하므로 프리즘 틸트 OIS, 렌즈 시프트 AF, 장거리 이동 및 페루프 제어 기술의 결합이 필요하다. 동사는 고중량 렌즈와 대형 이미지센서에 대응하는 구동구조를 확보하고 이를 일반 OIS와 다단 줌으로 확대하고 있다.

가변조리개와 카메라모듈 통합설계 기술은 촬영 환경에 따라 광량과 심도를 조절하는 고부가 구동기술이다. 동사는 저조도에서는 조리개를 넓혀 밝기와 보케(bokeh) 효과를 높이고, 밝은 환경에서는 조리개를 좁혀 심도와 선명도를 확보하는 다단 조리개 구조를 개발하고 있다. 2단에서 4단 이상으로 제품을 고도화했으며, 전도성 패턴과 구동기판을 활용해 복수 구동부를 연결하는 구조도 권리화했다. 이는 렌즈·센서·구동계의 배치와 전기적 연결을 함께 최적화하는 모듈 설계역량으로 평가된다.

■ 연구개발 역량

연구개발 조직은 광학필터 및 광학렌즈 기업부설연구소와 제품별 기술팀으로 구성되어 있고, 기업부설 연구소는 차세대 소재·광학구조와 신규 응용제품을 중심으로 중장기 기술을 개발하며, 각 사업부문의 기술팀은 고객 신제품 대응, 기존 제품 고도화 및 양산공정 개선을 담당하는 구조다. 지역별로는 대전에서 광학필터와 MLA 관련 사업 및 기술개발을 총괄하고, 과천에서는 전장용 렌즈·렌즈모듈과 광학 액츄에이터 연구개발을 수행한다. 중국과 베트남 생산거점은 시제품과 양산 결과를 연구개발 조직에 환류하고 현지 고객의 개발요청에 대응하는 역할을 맡고 있어, 국내 설계조직과 해외 양산거점이 연결된 개발체계를 갖추고 있다.

동사의 연구개발은 적외선 차단필터 후공정 자동화 시스템을 통해 검사·포장공정의 이물·열록·외관불량 검출을 자동화하고, 작업 편차와 인력 투입을 줄여 수율·생산성·품질 신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 최근에는 MLA와 비구면 렌즈를 결합한 렌즈 어셈블리, MLA 헤드램프, 다축 흔들림 보정 모듈, 라이다 윈도우 일체형 필터, 적외선 반사체 및 퍼들램프 관련 기술을 권리화하면서 연구 범위를 모바일용 광학필터에서 정밀 액츄에이터와 전장용 광학계로 확대하고 있다. 또한 완성차·조명업체, 연구기관 및 소재업체와의 공동개발을 통해 광학 설계·제조기술의 상용화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최근 기술개발 흐름을 고려할 때 연구개발의 중심은 차세대 필터 사양 대응, 액츄에이터 양산성 향상 및 모빌리티 적용처 확대에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지식재산권 및 인증 현황

동사의 지식재산권은 광학필터의 재료·박막구조에서부터 액츄에이터 구동구조, 렌즈·광학계, 검사공정 및 전장용 응용제품까지 폭넓게 구성되어 있고,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일부 권리를 확보한 것으로 파악된다.

광학필터 분야에서는 고·중·저굴절률의 3중층 구조, 탄소가 첨가된 수소화 실리콘층, 흡수형 근적외선 필터, 편광기와 적외선 차단필터의 일체화, 필터 캐리어와 이미지센서 패키지 및 수차 보정필터 등이 권리화돼 있다. 이들 특허는 투과대역의 효율을 높이고 불필요한 파장을 차단하는 동시에 필터 박형화, 입사각 변화 대응 및 이미지 품질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OIS·액츄에이터 분야에서는 프리즘과 렌즈를 서로 다른 축으로 구동하는 흔들림 보정 모듈, 힌지형 프리즘·수직 OIS 및 복수 구동부가 결합된 카메라모듈이 주요 권리로 구성돼 있다.

렌즈·광학계 분야의 권리는 촬상렌즈 설계, 비구면 렌즈, 보상 정렬렌즈, 렌즈 배럴, 온도 가변형 측정지그 및 파면 기반 광학 표면검사 장치로 이어진다. 전장 분야에서는 라이다 윈도우 일체형 광학필터와 적외선 반사체, MLA 헤드램프, 퍼들램프, 차량 로고 영상장치 및 발광장치 등이 포함돼 있다. 특히 포트폴리오가 제품 자체뿐 아니라 측정·검사와 제조방법까지 포괄하고 있어, 핵심 기술을 단일 구조보다 개발·양산 공정 전반에서 보호하는 형태에 가깝다.

최근 등록 흐름도 사업전략과 연결된다. 2024년에는 MLA 렌즈 어셈블리, 2025년에는 카메라모듈·MLA 헤드램프·렌즈시스템·발광장치, 2026년에는 라이다 필터와 반사체, 퍼들램프 및 흔들림 보정 모듈이 등록됐다. 특히 미국에서도 광학필터, 라이다 필터·반사체, 퍼들램프 및 OIS 관련 권리를 확보해 주요 고객과 응용시장의 해외 사업을 뒷받침하고 있다.

인증 측면에서는 품질 및 환경경영 기반을 뒷받침하는 DIN EN ISO 9001과 ISO 14001, 자동차 공급망 품질체계와 관련된 ISO/TS 계열 인증, 싱글PPM 품질인증의 취득 이력이 확인된다. 고객 공급망과 관련해서는 Sony Green Partner 선정과 국내외 주요 고객사의 우수협력사 수상 이력이 제시돼 있다. 이는 동사가 모바일과 자동차용 광학부품 공급에 필요한 품질·환경관리 및 고객 대응체계를 구축해 왔음을 보여준다.

■ PEST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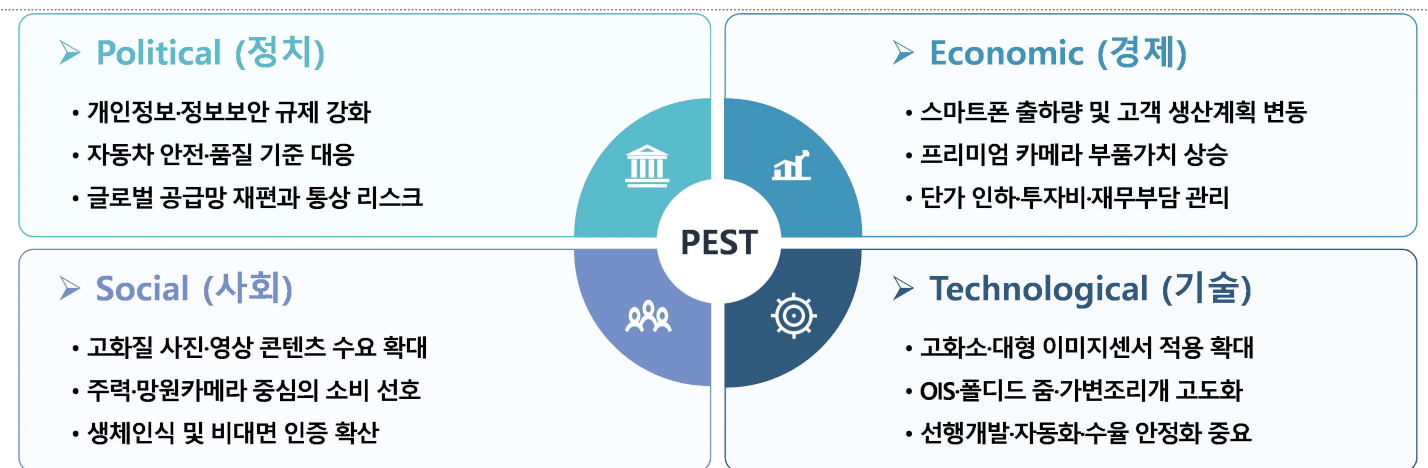
스마트폰 카메라와 차량용 광학부품은 개인정보 보호, 정보보안, 제품 안전, 환경규제 및 공급망 정책의 영향을 받는다. 특히 안면인식·거리측정 등 센싱 기능 확대는 데이터 처리와 프라이버시 규제를 강화할 수 있으며, 전장용 부품은 자동차 안전규격과 완성차 공급망의 품질·추적성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또한 미·중 기술분쟁과 각국의 첨단부품 공급망 자립정책은 중국 생산거점과 글로벌 고객 대응에 조달·통상 리스크를 높이는 한편, 국내 광학부품 공급망 재편과 대체 공급선 확보 측면에서는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

동사의 실적은 글로벌 스마트폰 출하량, 주요 고객의 생산계획, 환율 및 원재료·부품 가격 변화에 민감하다. 스마트폰 시장의 성숙과 보급형 제품 수요 둔화는 부품 물량과 단가에 부담을 주지만, 프리미엄 모델의 OIS·폴리드 줌·고사양 필터 채택 확대는 기기당 부품가치를 높이는 요인이다. 다만 고객사의 지속적인 단가 인하 요구와 신규라인 투자비, 전환사채 및 차입 부담이 병존하는 만큼, 수율 개선과 가동률 확보, 제품 믹스 고도화가 수익성과 재무안정성 유지에 중요하다.

사진·동영상 중심의 소셜미디어 이용, 모바일 콘텐츠 제작, 비대면 인증 및 영상 커뮤니케이션 확산은 스마트폰 카메라의 고화질·고배율·저조도 촬영 성능에 대한 수요를 뒷받침한다. 반면 소비자가 카메라 개수보다 주력·망원카메라의 실제 화질, 촬영 안정성 및 사용 편의성을 중시하면서 범용 보조카메라는 축소되는 추세다. 이에 따라 액츄에이터와 광학필터 시장도 저가 부품의 양적 확대보다 흔들림 보정, 광량 제어, 색 재현성과 센싱 정확도를 개선하는 고기능 제품 중심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지센서의 고화소·대형화, 폴리드 줌과 다축 OIS, 다단 가변조리개 및 AI 기반 계산사진 기술의 발전은 정밀 구동과 파장 제어 성능에 대한 요구 수준을 높이고 있다. 동사는 다층박막 필터 설계·증착, 정밀가공·자동검사, 렌즈·프리즘 구동 및 카메라모듈 통합설계 기술을 보유해 이러한 변화에 대응할 기반을 갖추고 있다. 다만 제품 세대교체가 빠르고 중국 업체의 기술·가격 경쟁력이 높아지는 만큼, 차세대 사양의 선행개발, 디자인인 확보, 양산 초기 수율 안정화와 제조 자동화 수준이 기술경쟁력 유지의 핵심으로 판단된다.

[그림 3] PEST 분석



자료: 서울평가정보(주)

IV. 재무분석

매출 성장과 원가율 개선으로 1분기 영업 수익성 회복

동사의 3개년 매출액은 2023년 2,330.0억 원, 2024년 2,179.6억 원, 2025년 1,957.4억 원으로 감소하였다. 수익성 측면에서는 3년간 영업이익이 2023년 100.8억 원에서 2024년과 2025년에는 각각 44.5억 원, 31.1억 원의 손실로 전환했다. 다만 2026년 1분기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25.5% 증가한 593.4억 원을 기록하였고, 영업이익은 원가율 및 판관비율 개선을 통해 44.1억 원 흑자를 나타냈다. 재무안정성 측면에서는 2025년 기준 부채비율은 291.3%, 유동비율은 43.1%로 단기 상환 부담이 존재하며, 2026년 1분기에도 차입금 증가로 부채비율이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였다.

■ 외형 축소 이후 2026년 1분기 광학부품 매출 반등

동사의 최근 3개년 매출액은 2023년 2,330.0억 원, 2024년 2,179.6억 원, 2025년 1,957.4억 원을 기록하였으며, 2025년의 경우 전방 IT 수요 둔화와 사업환경 변화 등의 영향으로 매출이 다소 둔화된 모습을 보였다.

최근 3개년 제품별 매출을 살펴보면, [이미지센서용 필터]는 2023년 728.3억 원에서 2024년 707.3억 원으로 유사한 수준을 유지한 후 2025년 588.2억 원으로 감소하며 기존 모바일 중심 사업의 부진이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광학줌]은 2023년 946.6억 원, 2024년 996.6억 원으로 증가한 이후 2025년 948.2억 원으로 일부 감소하였으며, [광학렌즈 및 모듈]은 2023년 401.0억 원에서 2024년 387.5억 원으로 감소하였으나 2025년에는 356.9억 원을 기록하며 비교적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였다. 기존 모바일 중심 사업에서 차량용 카메라 렌즈, 광학 액츄에이터(OIS), ADAS(Advanced Driver Assistance System,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 등 전장용 고부가가치 제품 중심으로 사업구조를 전환하는 전략이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2026년 1분기 연결 매출은 593.4억 원으로 전년 동기 473.0억 원 대비 25.5% 확대되었으며, 광학렌즈 및 모듈, 광학 줌 매출이 전년 동분기 대비 증가하였다. 2026년 1분기 매출 반등과 주요 광학부품 수요 확대가 확인된 만큼, 향후 제품 매출 개선과 가동률 상승이 이어질 경우 외형 회복 흐름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 외형 확대와 판관비율 개선으로 1분기 영업흑자 전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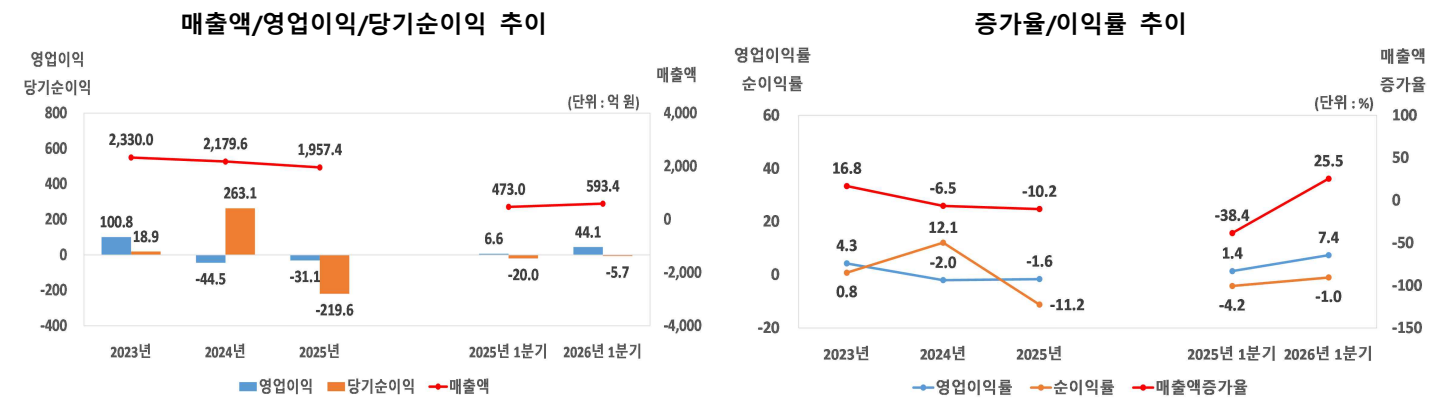
최근 3개년 영업이익을 살펴보면 2023년 100.8억 원, 2024년 -44.5억 원, 2025년 -31.1억 원을 기록하면서 수익성이 다소 약화되었다. 이에 따라 영업이익률도 2023년 4.3%, 2024년 -2.0%, 2025년 -1.6% 수준을 기록하였다. 외형 축소에 따라 매출원가 및 고정비 부담이 동시에 나타나면서 영업수익성이 저하된 것으로 보인다. 매출원가율의 경우 2023년 78.8%, 2024년 90.1%, 2025년 87.4%로 나타났으며, 판관비율의 경우 2023년 16.9%, 2024년 11.9%, 2025년 14.2%를 기록하였다. 판관비 중 경상연구개발비는 3년간 2023년 29.0억 원, 2024년 34.2억 원, 2025년 34.1억 원으로 나타났다.

당기순이익은 2023년 18.9억 원, 2024년 263.1억 원, 2025년에는 -219.6억 원 순손실을 기록하였다. 2024년 대규모 순이익은 매각예정자산처분이익과 같은 기타이익 증가의 영향이 크게 반영되었으며, 2025년에는 영업손실과 기타비용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순손실로 전환되었다.

2026년 1분기 영업이익은 44.1억 원, 당기순이익은 -5.7억 원을 기록하였으며, 매출 증가 및 판매비율 개선으로 영업흑자로 전환하였다. 매출총이익 확대와 판매비 효율화로 영업이익률이 개선된 만큼, 현재의 비용 구조가 유지되고 금융비용 부담이 완화될 경우 수익성 회복 가능성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그림 4] 동사 연간 요약 포괄손익계산서 분석

(단위 : 억 원, % K-IFRS 연결 기준)



자료: 동사 사업보고서(2026.03), 분기보고서(2026.05), 서울평가정보(주) 재구성

■ 단기성 자금조달 비중 확대

동사의 현금및현금성자산은 2023년 55.0억 원에서 2024년 24.1억 원으로 감소하였고, 2025년에는 21.0억 원으로 추가 감소하였다. 2024년에는 매각예정비유동자산 처분 등에 따라 투자활동에서 404.7억 원의 현금이 유입되었으나, 영업활동에서 352.1억 원, 재무활동에서 85.2억 원의 현금이 유출되면서 기말현금이 감소하였다. 2025년에는 영업활동 및 재무활동에서 각각 8.4억 원과 44.4억 원의 현금이 유입되었으나, 유형자산 취득 등에 따른 투자활동 현금유출 55.9억 원의 영향으로 기말현금이 소폭 감소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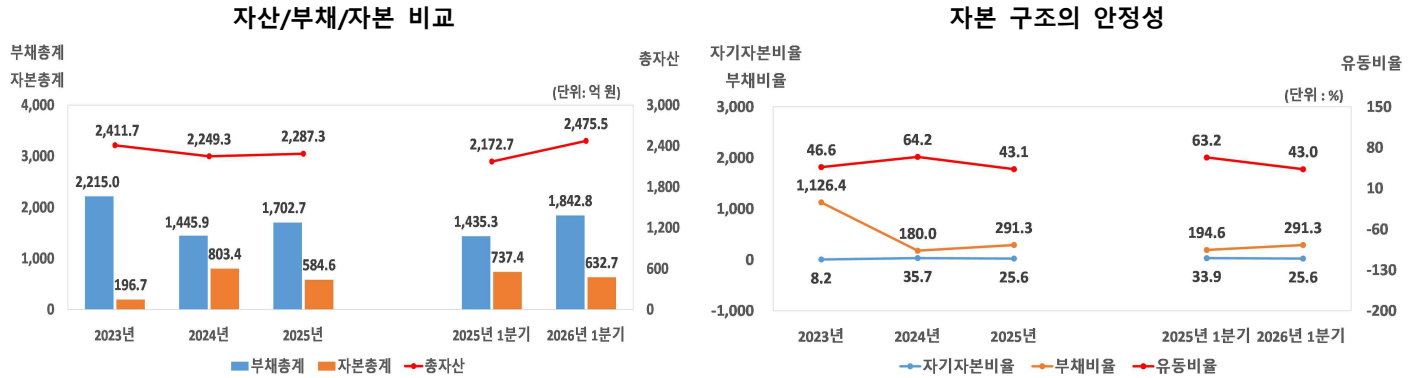
부채총계는 2023년 2,215.0억 원에서 2024년 1,445.9억 원으로 감소하였으나 2025년에는 1,702.7억 원으로 다시 증가하였다. 특히 전환사채와 금융부채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 자금조달 구조 변화가 나타났다. 차입금 상환도 지속되고 있으나, 신규 전환사채 발행 등으로 자본조달 구조가 함께 변화하였다. 부채비율의 경우 2023년 1,126.4%, 2024년 180.0%, 2025년 291.3%를 기록하였다.

자본총계는 2023년 196.7억 원, 2024년 803.4억 원으로 증가하였지만 2025년에는 584.6억 원으로 감소하였다. 자본 확충을 위한 유상증자와 전환권 행사 효과에도 불구하고 2025년 당기순손실이 이익잉여금 감소로 연결되면서 자본이 축소되었다.

2026년 1분기에는 유동비율 43.0%, 부채비율 291.3%, 자기자본비율 25.6%를 기록하였다. 차입 부담과 유동성은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나, 영업현금흐름이 개선되고 분기 실적 회복이 현금창출력 강화로 연결될 경우 재무안정성도 점진적으로 보완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 5] 동사 연간 요약 재무상태표 분석

(단위 : 억 원, % K-IFRS 연결 기준)



자료: 동사 사업보고서(2026.03), 분기보고서(2026.05), 서울평가정보(주) 재구성

[표 4] 동사 연간 요약 재무제표

(단위 : 억 원, % K-IFRS 연결 기준)

항목	2023년	2024년	2025년	2025년 1분기	2026년 1분기
매출액	2,330.0	2,179.6	1,957.4	473.0	593.4
매출액증가율(%)	16.8	-6.5	-10.2	-38.4	25.5
영업이익	100.8	-44.5	-31.1	6.6	44.1
영업이익률(%)	4.3	-2.0	-1.6	1.4	7.4
순이익	18.9	263.1	-219.6	-20.0	-5.7
순이익률(%)	0.8	12.1	-11.2	-4.2	-1.0
부채총계	2,215.0	1,445.9	1,702.7	1,435.3	1,842.8
자본총계	196.7	803.4	584.6	737.4	632.7
총자산	2,411.7	2,249.3	2,287.3	2,172.7	2,475.5
유동비율(%)	46.6	64.2	43.1	63.2	43.0
부채비율(%)	1,126.4	180.0	291.3	194.6	291.3
자기자본비율(%)	8.2	35.7	25.6	33.9	25.6
영업현금흐름	136.9	-352.1	8.4	-302.6	36.2
투자현금흐름	71.8	404.7	-55.9	265.3	-95.3
재무현금흐름	-272.9	-85.2	44.4	36.9	84.0
기말현금	55.0	24.1	21.0	23.8	46.1

자료: 동사 사업보고서(2026.03), 분기보고서(2026.05), 서울평가정보(주) 재구성

■ 동사 실적 전망

동사의 연결 매출은 2025년 1,957.4억 원으로 전년 대비 감소했으나, 2026년에는 2,110억 원으로 회복할 것으로 예상되고, 단기 전망은 본격적인 외형 성장보다는 2025년을 저점으로 한 점진적 회복에 가깝다. 주요 제품 전반의 매출 증가가 예상되는 가운데 광학줌이 회복을 주도하고, 이미지센서용 필터와 광학렌즈·모듈이 이를 보완하는 구조가 이어질 것으로 판단된다.

광학줌 매출은 2025년 948.2억 원에서 2026년 1,020억 원으로 증가하며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프리미엄 스마트폰의 OIS 적용 확대, 폴디드 줌과 고배율 망원카메라 채택, 일반 OIS 및 가변조리개 제품군 확대가 매출 회복의 주요 기반이다. 2026년 전체 예상 매출의 약 48%를 광학줌이 차지하는 만큼, 주요 고객사의 신규 모델 채택과 공급물량 배분, 신규 생산라인의 수율 안정화가 동사 실적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판단된다.

이미지센서용 필터는 2025년 588.2억 원까지 감소한 후 2026년 620억 원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고화소·대형 이미지센서와 적외선 센싱용 고사양 필터 수요는 긍정적이나, 스마트폰 출하 둔화, 기기당 카메라 수 감소 및 지속적인 단가 인하가 회복 폭을 제한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필터 부문은 과거 매출 수준으로 빠르게 복귀하기보다 고부가 필름필터와 대역통과필터의 비중 확대, 자동화 및 수율 개선을 통해 매출과 수익성을 방어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광학렌즈 및 모듈 매출은 2025년 356.9억 원에서 2026년 400억 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차량용 카메라와 CCTV를 기반으로 로봇틱스·방산·무인기 등 비모바일 분야의 수요가 확인되고 있으며, 일부 제품은 샘플 공급을 준비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 이에 모바일 사업과 구별되는 수요 기반을 확보하며 독자적인 성장축으로 비중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다만 공급 계획과 건적 협의가 실제 양산 매출로 이어지기까지 고객 검증과 계약 확정이 필요해, 실적 반영 시점은 프로젝트별로 달라질 수 있다. 한편, 상품 및 기타 매출은 2026년 70억 원으로 소폭 증가할 전망이나, 전체 실적에 대한 기여는 제한적일 전망이다.

종합하면 2026년 실적은 광학줌의 성장과 렌즈·필터 부문의 완만한 회복을 바탕으로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주요 고객 및 특정 스마트폰 모델에 대한 의존도, 기존 제품의 단가 하락, 중국 업체와의 가격 경쟁, 신규 OIS 라인의 초기 수율 및 스마트폰 시장의 불확실성이 남아 있다. 따라서 실질적인 실적 개선 여부는 매출 회복뿐 아니라 광학줌 양산 안정화, 고사양 필터 비중 확대 및 자동화를 통한 원가 절감이 수익성 개선으로 연결되는지에 좌우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6] 동사 연간 실적 전망

(단위 : 억 원, % K-IFRS 연결 기준)



자료: 동사 사업보고서(2026.03), 분기보고서(2026.05), 서울평가정보(주) 재구성

V. 주요 변동사항 및 향후 전망

경영·연구개발 거점을 재편하고 OIS 양산 안정화와 비모바일용 광학부품 사업화 추진 중

동사는 2025년 본사·연구개발 거점을 대전과 과천으로 재편하고, 베트남 생산법인을 활용해 일반 OIS와 가변조리개 등 광학 액츄에이터의 양산 기반을 강화하는 한편, 광학필터 중심의 사업구조를 정밀 구동 부품과 비모바일용 광학부품으로 넓히는 방향을 구체화하고 있다. 향후에는 신규 OIS 라인의 수율 안정화, 고사양 광학필터의 공급지위 유지 및 비모바일용 제품의 고객 승인 확대가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스마트폰 수요 변동, 고객·모델 집중도, 단가 인하와 가격 경쟁, 지분 희석 가능성은 부담 요인이다.

■ 최근 변동사항

동사는 최근 본사와 연구개발 거점을 핵심 사업 중심으로 재배치하였다. 2025년 3월 본점을 창원에서 광학필터 생산·기술 기반이 위치한 대전으로 이전했으며, 마이크로액츄에이터와 플루토스파트너스의 소재지도 과천으로 옮겼다. 이에 따라 대전은 광학필터와 MLA 사업을 총괄하고, 과천은 광학 액츄에이터와 전장용 렌즈·렌즈모듈 연구개발을 담당하는 구조가 보다 명확해졌다. 이는 단순한 주소 변경이라기보다 경영관리, 연구개발 및 신규 제품 사업화를 국내 핵심 거점에 집약하려는 조치로 해석된다.

사업 방향은 모바일용 광학필터 중심에서 광학필터, 정밀 액츄에이터 및 비모바일용 광학렌즈·모듈을 함께 전개하는 구조로 확대되고 있다. 최근에는 차량용 카메라와 라이더·MLA 조명뿐 아니라 방산·로보틱스용 특수광학 분야에서도 고객 협의와 양산 준비가 진행되고 있어, 모바일과 비모바일 광학부품을 병행하는 사업구조로 전환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OIS 사업은 실제 양산 단계로 진입하고 있다. 동사는 베트남에 OIS 전용 설비를 구축하고 스마트폰 제조사 대상 제품 공급을 추진하고 있으며, 복수의 생산라인을 순차적으로 가동할 계획으로, 기존 폴디드 줌과 가변조리개 중심의 구동부품 사업을 일반 OIS로 넓힐 수 있다. 향후에는 OIS 신규라인의 고객 승인과 초기 수율 안정화뿐 아니라 전장·방산·로보틱스용 렌즈 프로젝트의 양산 전환 여부가 사업 다변화 성과를 결정할 주요 요인이 될 전망이다.

한편, 동사는 과거 주가 안정과 주주가치 제고를 목적으로 취득한 자기주식 66만 7,239주를 보유하고 있으나, 현재 추가 취득이나 처분·소각에 관한 단기 또는 장기 계획은 없다. 이에 따라 보유 자기주식은 잠재적인 주주환원 수단이지만 현시점에서 소각을 통한 주당가치 제고로 연결된 상태는 아니다. 또한 전환사채의 전환이 계속될 경우 기존 주주의 지분 희석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향후 자본정책에서는 신규 자금조달과 자기주식 활용, 배당 또는 소각정책을 연계해 예측 가능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 향후 전망

단기적으로는 일반 OIS와 가변조리개의 양산 안정화가 사업 방향을 좌우할 것으로 판단된다. 고사양 스마트폰뿐 아니라 중가 제품에도 손떨림 보정 기능이 확대되면서 액츄에이터의 적용 범위가 넓어지고 있으며, 동사는 기존 광학필터와 폴디드 줌 공급 경험을 활용해 고객 기반을 확장할 수 있다. 다만 신규라인은 초기 수율, 조립 정밀도, 부품 조달 및 고객 품질승인에 따라 가동 안정성이 달라질 수 있어, 설비 확충 자체보다 불량률과 생산성 관리가 중요하다.

광학필터 사업은 기존 고객과 양산 노하우를 바탕으로 주력 기반을 유지하되, 일반적인 적외선 차단필터보다 고사양 필름필터와 대역통과필터 등으로 제품 구성을 고도화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스마트폰의 카메라 탑재 수 확대가 둔화되는 가운데 주력·망원카메라의 화질과 센싱 성능이 강화되고 있어, 시장 경쟁의 중심도

물량보다 파장 제어, 박막 균일도 및 미세 이물 관리와 같은 품질요소로 이동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자동검사와 후공정 자동화를 통한 수율 개선, 차세대 이미지센서 사양에 대한 선행 대응이 기존 공급지위를 유지하는 핵심 조건이 될 전망이다.

광학렌즈 및 모듈 부문은 전장과 보안용 제품을 기반으로 이미 일정한 사업 비중을 형성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로보틱스, 방산 및 무인기용 특수광학으로 적용처가 확대되고 있다. 동사는 차량용 카메라 렌즈와 렌즈모듈뿐 아니라 MLA 기반 조명, 라이다용 필터·반사체, 퍼들램프·로그램프 등으로 기술과 특허 범위를 넓히고 있으며, 완성차업체 및 연구기관과의 공동개발을 통해 사업화를 추진하고 있다. 글로벌 고객으로부터 수요가 확인되고 있고, 일부 프로젝트가 샘플 공급 준비 단계에 진입한 점을 고려하면, 해당 부문은 모바일과 병행하는 성장축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공급 전망과 견적 요청은 확정 수주와 구분되므로, 고객 검증과 양산계약 전환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조직 측면에서는 대전의 필터·MLA 사업, 과천의 액츄에이터·전장 연구개발, 베트남의 양산기능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것이 중요하다. 제품군이 필터에서 정밀 구동부품과 전장 광학계로 확대될수록 광학설계뿐 아니라 기구·회로·제어기술과 고객별 품질 대응이 함께 요구되기 때문이다. 향후 경쟁력은 개별 기술 보유 여부보다 국내 연구개발 결과를 해외 생산거점에서 안정적으로 양산하고, 이를 후속 모델의 디자인인으로 연결하는 실행력에 좌우될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스마트폰 수요 변동, 특정 고객과 모델에 대한 의존, 지속적인 단가 인하 및 중국 부품업체의 가격 경쟁은 부담 요인이다. OIS 신규라인의 품질 안정화가 지연되거나 비모바일 프로젝트의 양산 전환이 늦어질 경우 사업구조 다변화 속도도 예상보다 완만해질 가능성이 있다. 또한 전환사채의 추가 전환은 기존 주주의 지분 희석을 수반할 수 있어 자본구조와 잠재 매물 부담에 대한 관리가 요구된다.

종합하면 동사는 모바일용 광학필터의 공급 기반을 유지하면서 OIS·가변조리개 등 구동부품의 양산을 확대하고, 전장·방산·로보틱스용 렌즈와 MLA·라이다·특수광학 제품의 사업화를 병행하고 있다. 향후에는 OIS의 양산 안정화, 고사양 필터의 공급지위 유지와 함께 비모바일 프로젝트의 고객 검증 및 양산 전환이 핵심 과제가 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동사의 사업구조는 모바일 의존도가 낮아지며 모바일과 비모바일 정밀광학을 함께 전개하는 구조로 점진적으로 전환될 것으로 판단된다. 주주환원은 배당절차 개선에 비해 실제 실행이 뒤따르지 않은 상태이므로, 사업 안정화 이후 배당·자기주식 소각 등 구체적인 정책을 제시하고 전환사채에 따른 희석 부담을 완화하는지가 주주가치 측면의 주요 판단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옵트론텍(082210)

증권사 투자의견

작성기관	투자의견	목표주가	작성일
N/A	-	-	-

시장정보(주가 및 거래량)



자료: 네이버증권(2026.07.24)

최근 3개월간 한국거래소 시장경보제도 지정여부

시장경보제도란?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투기적이거나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있는 종목 또는 주가가 비정상적으로 급등한 종목에 대해 투자자주의 환기 등을 통해 불공정거래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장경보제도는 「투자주의종목 투자경고종목 투자위험종목」의 단계를 거쳐 이루어지게 됩니다.

※관련근거: 시장감시규정 제5조의2, 제5조의3 및 시장감시규정 시행세칙 제3조~제3조의7

기업명	투자주의종목	투자경고종목	투자위험종목
옵트론텍	O	X	X

* 2026년 6월 29일 소수계좌 거래집중 사유로 투자주의종목으로 지정된 바 있음.

* 2026년 6월 30일 소수계좌 거래집중 및 특정계좌(군) 매매관여 과다 사유로 투자주의종목으로 지정된 바 있음.

* 2026년 7월 14일 소수계좌 거래집중 및 특정계좌(군) 매매관여 과다 사유로 투자주의종목으로 지정된 바 있음.